



**쌍용건설,
김병호 새 대표이사 선임**

쌍용건설은 17일 정기이사회에서 김석준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건축본부에서 영업을 총괄하던 김병호 전무(54·사진)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1982년 쌍용건설에 입사한 후 그동안 건축·영업 분야에서 진뻏가 굵은 그는 2001년 도심 주상복합 '경희궁의 아침' 등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어 쌍용건설 정상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우방건설, 제2의 도약을 위
한 조직체계 강화**

우방건설은 이인환 부사장을 비롯해 최홍찬 전무, 이범래 상무, 양경득 상무, 고흥석 이사 등 임원 5명을 영입함으로써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완료했다. 이번에 영입된 이인환(55) 부사장은 배재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삼성건설에서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 출신으로 영업 활동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부산고, 한양대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서 실력을 쌓아온 최홍찬(54) 전무는 건설본부장을 맡게 됐다. 이범래(51) 상무와 양경득(52) 상무는 현대건설과 극동건설 출신으로 우방에서는 각각 업무본부장과 재건축·재개발 업무 담당 상무로 부임했으며 고흥석(46) 이사는 광고, 한국해양대를 거쳐 이번에 우방건설의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됐다.

**SK건설,
임원 승진 인사 단행**



SK건설은 3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손관호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유웅석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SK건설의 이번 인사는 회사의 성장에 따라 대표이사 부회장과 대표이사 사장의 역할 분

담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의 장기 발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손관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48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역학과를 졸업하고, SK케미칼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지난 2000년 SK건설 경영지원본부장, 2001년 SK텔레콤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한 후 2003년 SK건설 부사장, 2004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이번에 SK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유웅석 대표이사 사장은 49년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SK건설에 입사하여 94년 이사 대우, 2002년 전무이사(토목사업부문장), 2005년 부사장(토목사업부문장)을 거쳐, 이번에 SK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금호건설,
건설현장 펜스에도 유명 미술 작품 전시**



금호아시아나 제 2사옥 건축 현장에 설치된 현장 펜스가 봄을 맞이했다. 금호건설은 그동안 사고 방지나 기업 PR 수단으로 여겨졌던 현장 펜스에 미술 작품을 도입했다. 지난 2월 금호아시아나 제 2사옥 펜스에 설치된 작품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신 CI와 4명의 작가 7개 작품이 연결되어 구성되었다. 미래 컨셉트의 디지털 해체주의를 반영한 펜스 디자인은 비상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정재용 현장 소장은 "그동안 건설 현장에 설치된 높은 펜스 때문에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유명 미술 작품을 현장 펜스에 전시함으로써

거리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안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대림산업, '자녀사랑 그린서비스' 실시

대림산업은 2006년 3월 3일 북한산 e-편한세상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50여 곳의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에서 새봄맞이 '자녀사랑 그린서비스'를 실시한다. 새봄맞이 '자녀사랑 그린서비스'는 입주 후 3년 이내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일 무료 카페를 운영하는 고객 사은행사다. 일일 무료 카페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와 와플·팝콘 등을 제공하고, 페페로미아(Peperomia) 야생화와 미아 방지용 은팔찌도 나눠준다. 대림산업 고객센터 이연수 부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봄의 새싹처럼 예쁘고 씩씩하게 자라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림산업은 행사 기간 중에 단지 조경 상태가 청결하고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제조 작업, 병충해 방역, 비료 주기, 가지 치기, 잔디 깎기 등의 계절별 맞춤 서비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레이먼 디자인페어 시상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1세기 주거 문화를 바꿀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제 '제5회 레이먼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23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학생 부문 수상자에게는 연세대 대학원의 이치훈 씨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예린 씨가 각각 선정됐다. 59개 대학, 233개 팀 450명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이치훈·강예린 씨 팀은 'Situational payssage plan'이란 작품을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고, 주부 부문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이상숙 씨가 대상을 받는 등 총 61개 팀이 상을 받았다. 삼성물산 이상대 사장은 23일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학생 부문 대상에 상금 1000만 원, 우수상 상금 300만 원, 특선 상금 200만 원, 입선 50만 원, 주부 공모 부문 대상엔 상금 300만 원, 우수

상 상금 150만 원, 특선 상금 100만 원, 입선자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상성물산은 학생 부문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건축 디자인 세미나, 디자인 워크숍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회사 채용시 가점의 특전을 주고, 주부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1년간 상품·설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해주었다.

현대건설, '부모님과 함께 입사식' 3년째 시행



현대건설은 3월 3일 2006년 신입사원 114명, 신입사원 가족 214명 그리고 이지승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동 사옥 대강당에서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 새로 현대건설의 일원이 된 신입사원들의 입사를 축하했다. 이날 입사식에서 신입사원들은 함께 참석한 부모님께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까지 뒷바라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는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이에 신입사원 부모들은 격려사를 통해 입사를 축하하는 한편,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지승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건설업계를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현대건설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라며, 그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오랜 기간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뒷바라지해준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

표했다.

이어 이 사장은 "현대건설이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는 시점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행운아들"이라며 "앞으로 변화의 주역으로서 장인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했다. 또 "언제나 현대건설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회사 선배인 대리·과장급 선임 직원을 후견인으로 선정, 신입사원들이 직장생활에 적응 잘하고 핵심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토록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입사원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I' EVERGREEN PARK' 도입

현대산업개발은 사계절 내내 신록을 체험할 수 있는 아열대 온실커뮤니티 시설인 'I' EVERGREEN PARK'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I' EVERGREEN

PARK'는 'I' PARK 단지 내에 설치되는 아열대 온실로 남서 해안 지방의 아열대 식물을 유리 온실로 조성하여 입주민에게 사계절 내내 녹지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생태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올해 현대산업개발이 'I' EVERGREEN PARK' 개발로 진화하는 단지 내 조경시설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I' EVERGREEN PARK가 첫선을 보이는 곳은 올 6월 분양 예정인 대구 월배지구 'I' PARK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I' EVERGREEN PARK의 개발로 이제 아파트 내 조경시설은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I' PARK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 자치회 및 외부 전문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건설, 불우이웃 돕기 모금 '행복레이스' 행사



SK건설은 불우이웃 돕기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레이스' 행사를 실시했다. '행복레이스'는 SK건설 사내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할 때 참가자뿐 아니라 후원을 약속한 SK건설 직원들도 각각 자선기금을 기부하는 행사다.

지난 12일 개최된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그 첫 행사를 실시했다.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모은 성금은 SK건설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여하여 1000만 원이 넘어섰으며, 회사(SK건설)도 그 금액만큼 매칭 펀드로 기부하여 총 2000만 원가량의 기금을 모았다. 이 기금은 복지시설 등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는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원 27명이 참가했고, SK건설 직원 1600여 명의 이름이 동호회 선수들의 등판에 인쇄 형태로 기록돼 전 직원이 같이 '행복레이스'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장 이득선 부장은 "평소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지만, 행복레이스를 통해 주위의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인 것 같다"며 "앞으로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